한국문학논총 제58집(2011. 8) 423~452쪽

한국전쟁기 전시독본의 형성 기반과 논리*

이 순 욱**

차 례

1. 들머리
2. 전중기 독본의 존재방식과 유형
3. 전중기 전시독본의 발간 배경과 결전교육(決戰敎育)
4. 전시독본의 구성과 내용
5. 마무리

국문초록

두루 알다시피 독본은 교육제도의 안팎에서 생산·유통된 모범적인 읽기 교재를 말한다. 그것은 발간주체와 주체의 의도, 유통 맥락에 따라 다양한 성격을 지닌다. 이 글은 이제껏 한국전쟁기 교육 연구의 영역에서 배제되었던 전시독본의 현황과 형성기반, 성격을 실증적으로 고찰하는 데 목적을 두었다. 한국전쟁기는 단순히 일반교양과 지식을 전달하는 역할에서 나아가 전시체제에 부응하는 국민을 형성하기 위한 정훈독본의 발간이 가파르게 진행되었던 시기이다. 전시교육체제에서 학생들에

* 이 논문은 2010년도 정부재원(교육과학기술부 인문사회연구역량강화사업비)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음(NRF-2010-327-A00278).
** 부산가톨릭대학교 강사

교보문고 KYOBO Book Centre

게 국책 이념을 전파하고 시국 인식을 심화시키기 위해 공식적으로 유통된 '전시독본', 즉 『전시생활』과 『전시독본』이 대표적이다. 이는 국가주의를 관철시키고 총후(銃後) 국민 형성을 꾀한 국가 주도의 매체 가운데 하나였다. 이를 통해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우월성 확인, UN에 대한 이해와 공조의 필요성, 반공을 넘어 멸공필승의 신념을 견지하는 전시생활의 실천을 강조함으로써 전시국민의 정체성을 확립하고자 했던 것이다.

주제어 : 독본, 정훈독본, 전시독본, 문학독본, 반공독본, 『전시생활』, 『전시독본』, 결전교육, 국민 형성

1. 들머리

전쟁이 초래한 생활세계의 전면적 파괴는 학교제도나 문학사회를 포함하여 사회 전 부문에 걸쳐 새로운 의식구조를 형성하고 문화전선을 일정한 방향으로 재편하는 계기가 되었다. 전쟁의 시작과 함께 깊게 각인된 전쟁의 공포가 이를 가속화시켰다. 이러한 공포의 경험이 집적되면서 일반 대중은 남과 북 양쪽에서 모두 좌파/우파 또는 국민/비국민이라는 선택을 강요당했다. 이는 한 개인의 생존 여부를 결정하는 본질적 선택이었으며, 남북의 상이한 전시체제는 결국 중간이나 중도라는 이념의 중간지대를 본질적으로 허용하지 않았다. 국가가 체제 유지라는 명분만으로 국민을 학살하는 논리가 정당화될 수 있었던 한국전쟁기[1]는 국가

1) 이 글에서는 1948년 8월 남한단독정부 수립 직후부터 1954년에 이르는 시기를 '한국전쟁기'로 규정하고자 한다. 논의의 편의상 단정 수립에서 전쟁 발발 직전까지를 전전기(戰前期), 1950년 6월 25일부터 1953년 7월 27일 휴전까지를 전중기(戰中期), 비교적 사회 제도가 안정적으로 구축되어 가던 1955년 이전 시기를 전후기(戰後期)라 지칭하고자 한다. 가령 '한국전쟁기 문학'이라 할 경우에는 휴전

교보문고 KYOBO Book Centre

이데올로기가 사회의 전 부문을 규율하는 원리로 작동하면서 전시문화 체제가 가파르게 형성되었던 셈이다.

이제껏 한국전쟁기 문화 연구는 적지 않은 성과를 축적해 왔다. 특히 국가주의의 기획 아래 수행된 전시동원과 계몽, 전시체제와 반공주의에 대해서는 이미 상당한 성과를 내놓았다. 그런데도 전시(戰時)라는 특수 상황에서 이루어진 문화의 실상을 구체적으로 해명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무엇보다도 연구대상과 범위를 크게 확장해야 전시 동원 체제에서 국가주의의 시선이 문화 전반에 미친 영향을 심층적으로 점검할 수 있으리라 본다.

독본의 생산과 재생산, 유통과 향유는 전시문화의 중요한 현상 가운데 하나다. 두루 알다시피 근대계몽기 공식적인 교과서의 형태로 존재했던 독본(讀本)은 본보기가 될 만한 읽기 교재로서, 제도교육의 안팎에서 생산· 유통되었다. 그것은 발간 주체의 편찬의도와 시각에 따라 다양한 체제와 형식을 띠고 있으며, 내용 구성에서도 당대 사회의 주류적 시각을 적절하게 반영하고 있다. 한국전쟁기에는 다양한 종류의 독본이 생산되었다. 대표적인 것이 국책 이념을 효과적으로 전달할 목적으로 발간된 정훈독본[2]이다. 이 가운데 전시독본[3]으로 통칭되는 『전시생활』과 『전

이후의 문학을 폭넓게 '전후문학'이라 지칭하는 학계의 통념과는 달리, 문단조직의 분화와 신문 잡지 매체의 발간 등을 통해 문학제도가 자리를 잡던 1955년 이전의 문학자산까지 이 범주에 포함되는 셈이다. 우리 문학사(또는 문화사)에서 특정한 시기의 규정은 역사적 사건의 시작과 끝을 좇거나 10년 단위로 분할하여 서술의 편의를 도모하는 관행이 지배적이다. 그러나 특정한 시기를 규정하는 일은 처음과 마지막을 확연하게 분절할 수 없을 만큼 앞뒤 시기와 강한 연속성을 갖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역사학계에서도 비슷한 경우를 발견할 수 있다. 김동춘은 '좁은 범위에서의 한국전쟁'(1950년 6월 25일에서 1953년 7월 27일까지)과 '넓은 범위에서의 한국전쟁'(1948년 초순 단독정부 수립을 반대하는 2·7정치투쟁과 제주 4·3항쟁, 여순사건 등에서 발생한 경찰 및 우익단체들과 민중들 사이의 폭력적인 충돌, 그리고 1948년 겨울 이후 좌익이 주도한 유격투쟁에서 시작)으로 구분하고, 후자를 정의할 때 1950년 6월 25일부터 1953년 7월 27일 휴전까지를 '전면적 시기'라 지칭한다. 김동춘, 『전쟁과 사회』, 돌베개, 2000, 58쪽.

2) 전중기 당시에 '정훈'이니 '정훈교육'이라는 말이 폭넓게 유통되었지만, 한국전쟁

교보문고 KYOBO Book Centre

시독본』은 피난지 학생들에게 무상으로 공급함으로써 국가주의를 관철시키는 주요한 정훈독본이다. 전시독본은 적과 동지라는 이분법에 기대어 냉전적 반공주의를 전면적으로 확대하고, 이를 통해 미국으로 대표되는 자유민주주의 진영에 대한 과도한 동경을 내면화시키는 전략적 출판의 하나였다. 전쟁 체험이나 공포의 기억과는 별도로 성인에 비해 비교적 특정한 이념으로의 경사가 쉬운 어린이를 대상으로 총후(銃後) 국민 형성을 꾀한 국가 주도의 매체이다. 당시 전시교육 부문에 드리워진 국가주의의 실상과 지향을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유용한 텍스트가 바로 전시독본이다.

그런데도 이제까지 전시독본 12종은 이름만 알려져 있을 뿐이며, 그 실체를 구체적으로 밝히려는 실증적 연구가 없었다.[4] 1차 문헌자료의 망실과 유실이 일차적인 원인이지만, 여기에는 전시독본을 단순히 반공 텍스트의 일종으로 규정하여 그 의미를 과소평가하는 태도 등의 문제가 복합적으로 내재해 있다. 이 글은 그동안 한국전쟁기 교육 연구의 영역에서 배제되어 왔던 전시독본의 현황과 성격을 실증적으로 고찰하는 데 목적을 두었다. 전시독본은 한국전쟁기 매체가 일반적으로 노정하고 있는 반공주의의 색채를 강하게 지니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여타 독본과는 달리, 전시교육의 지향을 고스란히 반영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기 문학을 '정훈문학'이라는 용어로 처음 접근한 이는 박태일이다. 그는 군내 정치훈련, 장사병의 전후방 정훈교육뿐만 아니라 후방 민간인에 대한 심리·사상훈련이나 공작을 목표로 이루어진 문학을 '정훈문학'이라 보았다. 박태일, 「목포지역 정훈 매체 『전우』 연구」, 『현대문학이론연구』 제38집, 현대문학이론학회, 2009, 215~218쪽. 이 글에서 사용하는 '정훈독본'이라는 용어는 이 논의에서 비롯된바 크다.

3) 이 글에서는 발간 당시의 관행을 따라 『전시생활』과 『전시독본』을 '전시독본'으로 통칭할 것이며, 개별 서적을 언급할 때에는 『전시생활』, 『전시독본』으로 적는다.

4) 최근 한국교과서 전갑주 대표가 전시교재 12종을 최초로 공개한 것은 매우 뜻 깊은 일이다. 「6·25전쟁 중 발행 '戰時 교과서' 12종, 국내 최초로 공개」, 『조선일보』 2010년 3월 12일치 8면.

교보문고 KYOBO Book Centre

뒷날 광범위하게 생산된 반공독본·애국독본의 기원을 이루고 있다는 점에서 결코 가볍게 처리할 수 없다. 이 글에서는 우선 다양한 경로를 통해 양산된 독본의 현황과 형성기반을 고찰한 뒤, 이제까지 한 번도 실체가 공개되지 않았던 전시독본의 논리와 성격을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교육제도 안쪽에서 국가주의적 시선이 강하게 작동했던 한국전쟁기부터 멸공·승공 담론이 확대 재생산된 4차 교육과정까지 지속적으로 생산된 반공독본의 계보를 실증적으로 규명할 수 있으리라 본다. 나아가 한국 근현대 독본의 사회문화사를 구축할 수 있는 디딤돌을 마련할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2. 전중기 독본의 존재방식과 유형

한국전쟁기 독본은 다양한 이름으로 존재했다. 독본은 학교제도 안쪽에서 특정 교과의 부교재의 기능을 수행했을 뿐만 아니라 교육제도 바깥에 놓여 있는 군인이나 일반 대중에게 특정 이념이나 지식을 알기 쉽게 전달할 목적으로 출간되었다. 국방부 정훈국이나 각군 정훈감실 등의 군 기관, 문교부, 국민사상지도원 등의 정부산하 조직, 대한교육연합회, 문화교육연구회, 생활교육연구회 등의 교육단체, 전국공산주의타도연맹이나 대한군경원호회 등의 민간단체, 개인 등이 독본의 발간 주체이다. 수용자 또한 학생(초등학생, 중고등학생, 대학생), 군인, 일반대중으로 다양한 편이다. 이 시기에 생산된 독본은 발간주체와 의도, 유통 맥락에 따라 크게 정훈독본과 일반독본으로 나눌 수 있겠다.[5] 정훈독본이 정치

5) 물론 독본의 발간 의도가 복합적이어서 정훈독본과 일반독본의 경계가 뚜렷하지 않을 수 있다. 가령 문교부에서 발행된 『성인독본』(합동도서, 1952)이나 『국문독본』(합동도서, 1954)만 보더라도 한글학습에서 나아가 민주시민의 자질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우월성을 자연스럽게 습득케 한다는 점에서 정훈적 요소를 어느 정도 지니고 있다.

교보문고 KYOBO Book Centre

훈육을 북돋아 국가이데올로기를 관철시키려는 정훈적 효용을 지향한다면, 일반독본은 특정한 분야의 교양과 지식을 전수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6]

전중기에는 일반 대중뿐만 아니라 장사병의 정신무장을 강화하기 위해 다양한 유형의 정훈독본이 발간되었다. 이 가운데 맨 앞자리를 차지하는 것이 1951년 3월 초·중학생과 성인용으로 기획 발행된 『전시생활』과 『전시독본』이다. 이와 함께 1951년 여름·겨울방학 공부용으로 마련된 『전시부독본』과 1952년부터 발간된 초등학교 부독본 『여름공부』와 『겨울공부』, 그리고 문교부 선정 상용한자를 효과적으로 학습시키기 위해 생활교육연구소에서 낸 『常用漢字讀本』 1~3권(금룡도서주식회사, 1952)도 국가주의를 관철시키고 있는 정훈교육독본이다. 또한 전쟁이라는 특수한 상황에 부응한 『戰時文學讀本』(계몽사, 1951)이나 군 기관에서 승전의식을 고취할 목적으로 발간한 소설집 『勳章』(공군본부 정훈감실, 1952)과 『海戰小說集』(해군본부 정훈감실, 1957), 『海兵將兵文藝集』 1집~4집(해병대사령부 정훈감실, 1953-1954)은 정훈문학독본이며, 『정훈교본-휴전에 대비하여 더욱 정신무장을 굳게 하자』(육군본부 정훈감실, 1953)는 이 시기 국가주의적 시선이 강력하게 작동하고 있는 정훈교육독본이다.

다음으로 학교제도나 민간에서 발행된 일반독본을 들 수 있다. 이 가운데 가장 많은 종수를 차지하는 것이 문학독본이다. 문학독본은 문학지식과 교양을 전수하는 데 목적을 둔 텍스트다. 물론 문학의 정전화와 문단재편성의 논리를 함축하여 학생들에게 특정한 문학 관념을 전달한다는 점에서 정훈적 성격을 지니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이 유형은 문교부 검인정 여부에 따라 두 계열이 있다. 첫째, '국어 참고용' 혹은 '중등국어

6) 독본은 대상 텍스트의 성격이나 유통 맥락에 따라 다시 여럿 유형으로 나눌 수 있을 것이다. 가령, 정훈독본의 경우에도 유통 맥락에 따라 학교제도에서 유통된 교육독본,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한 교양독본으로 세분화할 수 있다.

교보문고 KYOBO Book Centre

부독본', '일반남녀 중학교 교재용'이라는 부제를 달고 학교현장에서 국어과 부교재로 사용된 경우다. 『中等文藝讀本』(김광주 엮음, 대덕문화사, 1951), 『女學生文學讀本』(박목월, 영웅출판사, 1951), 『중등 문예독본』(모윤숙・김동리・장하일, 아카데미사, 1952), 『문학독본』(최근학, 대동문화사, 1952), 『중학생 문예독본』 1-3권(장만영 엮음, 대양출판사, 1952)과 『고등 문예독본』(장만영 엮음, 대양출판사, 1953), 『학생 문장독본』,(김용호 엮음, 남광문화사, 1953), 『古典敎本』(류정기 편역, 유인본), 대학교재로 사용했던 『現代國文學粹』(조향 엮음, 자유장, 1952)과 『敎養國語』(김근수 엮음, 유인본, 1953), 『국문학독본』(김사엽, 대동문화사, 1953), 『韓國現代詩選-중기』(경북대 사범대학 국문학회, 1953)[7] 등은 학제와 독자층을 달리하면서 문학교육과정에 구체적으로 작동되었던 독본들이다. 둘째, 교육제도와는 큰 연관성 없이 '문예독본(文藝讀本)'이나 '문학강화(文學講話)', '문장강화(文章講話)'라는 표제를 달고 간행된 경우다. 이 계열에는 『現代文藝讀本』(김동리・조연현 엮음, 정음사, 1953), 『新文學講話』(문예연구회 엮음, 청춘사, 1953), 『한글文章讀本』(송욱 엮음, 유인본), 『文章讀本』(이광수, 청록사, 1953) 등이 속한다. 『靑春의 花園』(이봉구 엮음, 동아문화사, 1952), 『世界名作解說』(김광주 엮음, 수문관, 1953), 『世界名作鑑賞讀本』 상(김용호 엮음, 홍지사, 1953) 등도 세계문학의 독서 취향과 향유 방향을 암묵적으로 제시한 문학독본 텍스트다.

한국전쟁기 문학사회와 국가이데올로기, 교육의 길항관계는 아주 밀접하게 유지되어 왔다. 전쟁을 계기로 문학 장(場)을 전유한 문협정통파 문학인들은 정형화되고 표준화된 문학담론을 재생산했던 것으로 보인

7) 이 시선집은 1949년 이후 제도출판에서 거의 배제되었던 납・월북, 재북 작가의 작품을 수록하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뜻 깊다. 정지용, 김기림, 백석, 오장환, 임학수, 주수원, 김철수, 민병균, 김조규 등의 시가 2~3편씩 실려 있다. 사범대학 국어과 부교재로 사용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이 독본은 유인본 문학독본의 특성을 함축하고 있다. 이 텍스트를 포함하여 한국전쟁기 문학독본에 대해서는 고(稿)를 달리하여 논의할 예정이다.

교보문고 KYOBO Book Centre

다. 독본 텍스트들의 체제와 내용, 문학작품의 선별기준과 정전 위계화를 통해 이 시기 문학독본은 대중들과 학생들의 문학교양과 의식을 반공주의와 순수주의로 내면화하는 데 효과적이었다. 이러한 관념은 한국전쟁기를 거치면서 더욱 강력하게 작동되었으며, 이후의 국어과 교육과정의 구성에도 큰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대체로 한국전쟁기 문학교육 연구는 반공이데올로기가 애국주의와 결합하면서 문학교육과정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국가주의적 시각을 내면화한 문학작품이 국어교과서에 정전화되는 과정과 그것의 효과를 규명하는 데 집중해 왔다. 그러나 다양한 문학독본을 염두에 두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주된 텍스트로 삼고 있는 『국어』, 『중등국어』, 「고등국어』의 실체조차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국전쟁기 국어 교과서는 문교부 발행분만 하더라도 적어도 3차례 이상 수록 내용과 체제, 학기 단위에서 부분적인 변화가 있었으며, 용지 부족으로 각 지역별 학교별로 유인본(油印本) 『국어』 교과서나 『문학개론』류 서적이 유통되거나[8] 『군용국어』가 발간되기도 했다. 그러나 국어교과서 보다도 집단적인 양상을 띠며 문학제도화에 이바지한 영역은 오히려 문학독본이다.

문학독본의 생산과 향유에서 특징적인 현상은 한국전쟁기 이전에 발행된 문학독본을 새롭게 엮거나 판을 달리하여 거듭 발행했다는 사실이다. 개정판의 경우에는 광복기 문화인 통제 차원에서 제기된 금서 조치의 논리를 반영하여 월북 작가에 대한 전면적인 배제가 이루어졌다. 월북 자체가 금서의 분류 기준으로 아주 공고하게 작용하였던 셈이다. 즉 사상을 잣대로 책의 전쟁이 가시화되었고, 결국 총의 전쟁으로 이어지면서 책의 소통 가능성이 아예 사라지고 말았던 시기가 한국전쟁기다.[9]

---

8) 『중등국어』 3-Ⅱ(문교부, 1952.9)의 제목을 바꾸어 『중등국어』 3-1로 등사한 경우나, 『문학개론』(대전공고, 1955)처럼 유인본 교과서의 발간은 이 시기 출판의 특징적인 현상이다. 이처럼 한국전쟁기는 용지난에다 인쇄 환경의 미비로 유인본(油印本) 문학서적의 생산이 두드러졌다. 이순욱, 「한국전쟁기 부산 지역문학과 동인지』, 『영주어문』 제19집, 영주어문학회, 2010, 122쪽.

교보문고 KYOBO Book Centre

3. 전중기 전시독본의 발간 배경과 결전교육(決戰敎育)

서울 수복 직후 북한군을 절멸하여 통일을 달성할 수 있으리라는 낙관적 기대가 1·4후퇴로 여지없이 무너지면서 한국사회의 공포는 극에 달했다. 정치적 피난의 성격이 강했던 개전 직후와는 달리, 1·4후퇴와 서울 피탈은 일반 대중들의 생존을 위한 대규모 피난[10]을 초래했다. 후방사회가 피난민들로 넘쳐나고 전선에서 점령과 철수가 반복되는 가운데, 정부로서는 전쟁을 승리로 이끌 더 강력한 전략이 필요했다. 서울 수복 이후 부역 심사를 거치면서 남한의 권력구조는 반공이데올로기로 확실하게 고착화되었으나[11], 후방사회는 일선의 상황과는 달리 반공국민으로서의 규율을 새롭게 정위시켜야 할 만큼 향락과 퇴폐가 극에 달했다. 아래 인용문은 당시 피난수도 부산의 상황을 잘 보여준다.

> 兵站基地이며 한국의 심장부인 釜山은 지금 어써한 형태를 비저내고 잇는가? 作戰上 不得已 수도 서울을 철수함에 싸라서 자유를 찻아 남으로 남으로 나려온 이른바 피난민들이 몰려든 곳은 大邱를 據점으로 하여 그의 종극은 이곳 釜山이다. 과연 이러한 성격을 씨운 釜山은 결코 自由의 溫床도 아닐 것이며 避難의 곳도 아니다. 오로지 여기는 최후의 승리를 지표하여 시련하고 戰力을 북도다 人物 兩面의 兵站을 完遂할 基地일 것이다. 그러나 一部의 國民은 무엇 思索하고 잇스며 무엇을 하고 잇는가. 平和時와도 遜色업시 紫煙과 喧噪에 싸인 다방은 謀利 탐욕의 소굴이 되어 잇스며 한쪽으로는 敵五列이 '데마'를 散布하는 '아씨트'가 되어 잇다. 그 뿐이냐. 그대의 야릇한 얼골 그대의 옷도 서슴치 안코 남녀의 무리는 무엇 때문에 헤메이고 잇느냐. 밤의 거리는 또한 어써하

9) 이중한, 『책, 사슬에서 풀리다』, 혜안, 2005, 300쪽.
10) 1951년 1월말에서 2월초에 조사한 남한 정부의 통계를 보면, 피난민은 총 489만 369명에 달했는데, 이는 전주(前週) 대비 125만 869명이 증가한 숫자였다. 박명림, 『한국 1950 전쟁과 평화』, 나남, 2002, 719쪽.
11) 이순욱, 「한국전쟁기 피난지 부산과 국민형성의 담론」, 『작가와 사회』 39호, 산지니, 2010, 28쪽.

교보문고 KYOBO Book Centre

냐. 노름과 酒池肉林의 추잡스러운 모습은 六·二五 이전을 외짠칠 뿐이다.

餘裕잇고 濁□性 잇는 銃後도 조타. 그러나 智覺업는 一部의 徒輩 때문에 戰意를 阻害시켜서는 우리의 將來는 어씨될 것인가. 職을 가질래야 가질 수 업다면 自進하여 軍需品이라도 날느자. 國民兵도 조타. 防衛軍도 조타. 한 사람 남김업시 戰列에 나서야만 이 戰爭을 이길 수 잇스며 敵의 人海戰術도 막어낼 수 잇다.

敵은 바로 우리 발둥밋테 와 잇다. 나만 편하고 나만 돈을 벌면 이 전쟁이 지드래도 혼자만 살 수 잇슬 것인가. 그대의 손을 가슴에 대고 □요히 反省하여 보자. 亂濁한 國際港都 釜山ㅡ 恥心을 일흔 釜山ㅡ □局에서 내릴 □阻肅淸의 날도 머지 안흔 것이다. 그날도 지금 寸刻을 다투고 잇다. □□局은 바야흐로 來日의 運命을 豫測할 수 없는 이유가 아닌가. (□는 판독 불가-글쓴이)

—「戰爭을 忘却한 釜山?-"보이소 避難을 왓소 遊覽을 왓소."」[12]

당시 부산은 "敵 五列이 '데마'를 散布하는 '아씨트'"이자 "노름과 酒池肉林의 추잡스러운 모습"으로 얼룩진 "恥心을 일흔" 도시였다. "최후의 승리를 지표하여 시련하고 戰力을 북도다 人物 兩面의 兵站을 完遂할 基地"로서의 면모를 상실한 공간이었다. 이러한 마약과 도박, 탐욕과 환락에 탐닉하는 세태야말로 "戰意를 阻害시"키는 분명한 적으로 인식되었다.

이 시기는 "作戰上 後退를 錯覺하고 敵 五列의 謀略에 빠져 자칫하면 退嬰的 妄動을 일삼어 民族 將來의 一大禍根을 招來할 우려가 極甚한"[13] 중대단계였다. 일선의 중공군 못지않게 "발둥밋테 와 잇"는 '적'과의 투쟁이라는 이중전선에 직면하여 새로운 돌파구가 필요했다. 그만큼 이 시기는 전후방에 걸쳐 전선이 이중화되어 산재해 있었던 셈이다. 따라서 공산주의와의 투쟁을 수행한다는 국가안보의 명분만으로 민간인 학살을 정당화시켜 왔던 국가가 국민/비국민의 경계를 강조함으로써 위

12) 『동아일보』 1951년 1월 11일치 2면.
13) 「文化人 總蹶起大會」, 『동아일보』 1951년 1월 12일치 2면.

교보문고 KYOBO Book Centre

문과 동원, 참전 담론을 광범위하게 강조한 것은 당연한 귀결이었다. 남한의 우파를 절멸시키려는 전쟁의 시작과 함께 남한과 북한을 막론하고 좌파와 우파가 함께 살 수 있는 공간이 사라졌던 것처럼[14], 전선이 급변한 1951년 초 부산에서 민심을 교란하는 "오열", 즉 간첩이나 향락과 퇴폐에 물든 사람, "나만 편하고 나만 돈을 벌면" 된다는 기회주의자는 좌파와 동일시되는 비국민일 수밖에 없었다.[15] 인용문과 같은 지면의 특집 기사 「戰列을 離脫逃避하려는 者 누구? 民族의 運命은 우리 自身의 손에 노여져 잇다」는 제주도로 도피하고 일본으로 밀항하려는 자, 염전(厭戰) 선전을 하는 무리, 이들과 결탁하려는 부패한 권력가들의 행태를 규탄하고 있다.[16] 이들 또한 바로 전열을 이탈하여 도피하려는 '비국민'들이다.

이러한 비국민을 적발하고, 총동원 체제로 전열을 재정비하는 것이 후방사회의 중대한 과제였다. 그런 까닭에 생활을 전시체제로 개편하여 초비상태세를 취하고, 이를 통해 얻은 힘을 전선에 동원하여 위문품이나 위문편지를 보내자는 "일대국민운동"이 요청되었다.[17] 이른바 '결전(決戰) 국민생활'을 실천하고 멸공의 투지를 앙양하는 정신무장이 필요했던 것이다. 1951년 3월 12일 문교부와 부산시의 후원으로 전국문화단체총연합회, 각 종교단체, 대한교육연합회, 대한성인교육회, 대학연맹, 대한

14) 박명림, 앞의 책, 315쪽.
15) 당시의 사회 풍조를 비판하면서 후방사회에서 갖추어야 할 반공윤리를 강조하는 기사는 지속적으로 나타난다. "수백리 길을 어린애를 업고 거러나오는 헐버슨 어머니, 풍설과 비를 맞어가며 三, 四일씩 참호 속에서 진지를 확보하고 있는 일선용사를 생각할 때 후방에서 우리들이 호화로운 외모를 하고 비국민적인 태세로 귀중한 시절을 보낸다는 것은 싸우는 일선과는 넘어도 보조가 맞지 않으며 나아가서는 하나의 반전(反戰) 행동일지도 모른다." 「戰時와 外貌-싸우는 후방의 모습을 가추자!」, 『경향신문』 1951년 3월 5일치 2면.
16) 「祖國 일코 個人命脈維持란 될 말? 民族運命은 重大關頭 腐敗한 權力家를 摘發하자」, 「政府는 釜山서 떠나지 안는다 日本 密航企圖者를 嚴重處斷」, 「濟州道 避難行 禁止」, 『동아일보』 1951년 1월 11일치 2면.
17) 「臨戰國民精神再武裝緊急」, 『동아일보』 1951년 1월 12일치 2면.

교보문고 KYOBO Book Centre

체육회, 대한학도호국회 주최로 문교단체정신무장총궐기대회를 부산 시내 충무로 광장에서 개최한 것[18]은 당시 피난지의 상황이 그만큼 심각했음을 반증한다.

전시교육 또한 같은 맥락에서 새로운 전환이 필요했다. 국가는 정치의 교육화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여러 장치를 사용하는데, 대표적인 것이 매체의 발간이다. 예술의 정치화를 추구했던 카프 소장파들이 기관지 매체의 발간을 강조했던 것처럼, 매체는 국가이데올로기를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강력한 수단이다. 정훈독본은 이러한 상황에서 발행된 국가기획의 산물이다. 문교부가 유엔 국기를 복사하여 배부하거나, 사상지도원을 두어 '사상총서'와 월간지 『思想』을 발간[19]하여 국민 사상 선도에 적극 나선 까닭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국론과 여론을 좌우하는 전시독본이라는 매체 자체가 이미 탄환의 역할[20]을 수행하는 셈이다.

교육이 국가정책을 적극적으로 반영한다고 보면, 전시교육의 목표는 멸공통일과 전후재건에 있었다.[21] 즉 전중기는 전시교육체제를 확립하기 위한 전시독본의 발간 못지않게 피난민 교육, 대학교육의 종합강좌

18) 「文敎團體 精神武裝總蹶起大會 開催 趣旨」, 『동아일보』 1951년 1월 12일치 2면.
19) 한국교육십년사간행회 엮음, 「避難中의 敎育」, 『한국교육십년사』, 풍문사, 1960, 147쪽. 그러나 문교부 산하 사상지도원에서 발간했다는 『思想』은 사상계의 전신인 『思想』(사상사)과는 다른 매체로 이해된다.
20) 당시 대한민국의 정치이념에 대한 "국민계몽운동"이나 북한동포들에 대한 "宣撫工作" 활동의 지속성을 요청하고 있는 한 출판인의 다음 글은 다양한 매체를 통한 사상전의 중요성을 환기시킨다. "삶이냐? 주검이냐? 民主主義냐? 共産主義냐를 결정하는 武力戰은 매일같이 지금 이 순간에도 進行되고 있다. 武力—背後에는 理念이 있고 思想이 있다. 이것 때문에 우리는 싸우고 또한 유엔 友邦군대도 와서 같이 싸우지 있지 않은가. 종이는 이미 彈丸이다. 火山의 彈丸은 말할 필요조차 없다." 최 준, 「종이는 彈丸이다 ①-危機에 處한 出版界」, 『경향신문』 1951년 5월 9일치 2면. 이는 출판 부문에 한정된 논의라기 보다는 문화의 전 영역에 해당하는 제안이다.
21) "당시 국가 민족이 당면한 문제는 ①무엇보다 멸공필승의 정신에 불타는 애국애족자를 육성함과 ②전재복구와 전후국민생활의 재건을 희구하고 실시하려는 열렬한 생산인을 육성함일 것이다." 한국교육십년사간행회 엮음, 앞의 책, 137쪽.

교보문고 KYOBO Book Centre

개방, 교원의 생활보장, 학교시설의 복구, 낙오학도의 집단 수용[22] 등의 문제가 놓여 있었다. 전시 문교시책의 방향은 이러한 현안을 구체적으로 실천하는 데 있었다. 이것은 피난학생에 한정된 문제만은 아니었고 당시 남한사회 교육 전체의 문제였다. 실제로 1·4후퇴 직후 260만의 국민학교 아동, 중등학교 학생 40만명과 1만 5천명의 대학생들이 교사(校舍)와 교사(敎師)가 없었으며, 수업에 필요한 교재가 없었다. 당시 백낙준 문교부 장관이 전시교육의 지침을 "재래의 형식교육을 떠나 필승체제에 卽應하는 실천교육에 치중"[23]할 것이라 표명한 것도 이러한 사정과 무관하지 않다. 문교당국은 1951년 2월 16일자로 「戰時下 敎育特別措置要綱」을 제정하여 수업을 개시할 것을 시달하였다. 교과서 문제를 해결하고 전시생활을 지도하기 위해 전시독본을 발간하고, 교사들에게는 「戰時學習指導要領」을 제공하였다. 또한 한자교육이 한국문화발전에 필요하다는 견지에서 상용한자 1천자를 골라 초등학교와 중학교에서 상용한자 수업을 실시하도록 하였다.[24]

> 그 후 피난지 부산에서 지방에 산재한 빈약한 인쇄 시설과 파괴되고 남은 인쇄기를 뜯어 맞추고, 새로이 활자를 만드는 등 만난을 무릅쓰고 빈손으로 피난 온 학생들에게 위선 학업을 계속할 수 있는 교재를 새로 인쇄 배부하였으니, 그것이 임시 교재인 전시독본으로 국민학교용 3종 3집을 발행하는 동시에, 중학교용 1종 3집을 발행하여 국정 교과서 발행의 공간을 메우는 데 이바지하였다.[25]

전시독본은 전시 생활을 지도하기 위한 '국민학생용' 『전시생활』 9종

22) 「全國特別地方官會議遂開幕!-官尊民卑 官僚獨善 等 固陋한 觀念을 淸算하자 張國務總理의 訓示要旨」, 『경향신문』 1951년 3월 8일치 2면.
23) 「백낙준 문교부장관, 기자회견에서 전시교육방침 등 문교행정에 대해 언명」, 『민주신보』 1951년 1월 27일치 2면.
24) 한국교육십년사간행회 엮음, 앞의 책, 136쪽.
25) 문교부, 『문교개관』, 대한문교서적주식회사, 1958, 178~179쪽.

교보문고 KYOBO Book Centre

과 '중학생 및 성인소용' 『전시독본』 3종으로 구성되어 있다. 여태껏 교재 이름조차 잘못 표기해온 기존의 연구 관행은 실체를 제대로 확인하지 못한 데서 말미암았다.[26] 『전시생활』과 『전시독본』으로 분류하여 7월 10일 현재 45만 부를 팜플렛으로 인쇄하여 배부하였으며 앞으로 교과서의 부족을 느낄 때 더 발행할 방침[27]이었다는 기사를 통해 전시독본이 유엔 국기와 함께 폭넓게 유포되었던 전시교육담론 매체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28]

전시독본의 편찬은 최현배 문교부 편수국장의 주관으로 편수관 최병칠, 최태호, 홍웅선이 담당했다고 한다. 『전시생활』 9종은 표지를 갱지로 씌운 상태에서 한결같이 32쪽 분량으로 인쇄하였다. 이는 전지 반장을 접어서 나오는 8장을 4·6판 절수에 맞추었기 때문이다. 원래 교과서의 판형은 옛날부터 국판(5·7판)이 기준이었는데, 이를 통해 4·6판으로 제작할 수밖에 없었던 당시의 용지난을 짐작할 수 있다. 활자 또한 1·2학년용과 3·4학년용은 활자체를 모사(模寫)하여 인쇄했고, 5·6학년용은 5호(10.5포인트) 활자를 끌어 모아 조판했다. 판권지 위에는 「참고」 사항을 마련하여 제본 방법을 그림으로 제시하고 있다.[29] 그만큼 제본도 허술했던 셈이다.

---

26) 허 강, 『한국의 검인정 교과서』, 일진사, 2004, 101쪽; 이종국, 『한국의 교과서 변천사』, 대한교과서(주), 2008, 154쪽.

27) 「敎科書 45萬部 發行」, 『경향신문』 1951년 7월 15일치 2면.

28) 『전시생활』의 발행부수는 363,810부(유엔 국기 10만부 포함)에 이른다. 한국교육십년사간행회 엮음, 위의 책, 144쪽. 실제 이 책에서는 발행부수를 36,381,000부로 적고 있으나 당시 피난지의 학생 수나 용지난을 감안할 때 단순 오기로 보인다.

29) "이 책은 전시판이므로 제본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니 교사나 부형이 다음과 제본하여 학생에게 주기 바란다. 1. 바늘에 실을 꿰어 접은 데를 밖에서 안으로 잡아맨다. 2. 4·6판에 맞도록 도련을 한다."

교보문고 KYOBO Book Centre

	교 재 명	대 상	발행일자
전시생활 1-1	비행기	국민학교 1·2학년	1951.3.25.
전시생활 1-2	탕크	국민학교 1·2학년	1951.3.25.
전시생활 1-3	군함	국민학교 1·2학년	1951.3.25.
전시생활 2-1	싸우는 우리나라	국민학교 3·4학년	1951.2.25.
전시생활 2-2	우리는 반드시 이긴다	국민학교 3·4학년	1951.3.25.
전시생활 2-3	씩씩한 우리 겨레	국민학교 3·4학년	1951.3.25.
전시생활 3-1	우리나라와 국제연합	국민학교 5·6학년	1951.3.25.
전시생활 3-2	국군과 유엔군은 어떻게 싸워 왔나?	국민학교 5·6학년	1951.3.5.
전시생활 3-3	우리도 싸운다	국민학교 5·6학년	1951.3.6.
전시독본 1	침략자는 누구냐?	중학생 및 성인 소용	1951.2.25.
전시독본 2	자유의 투쟁	중학생 및 성인 소용	1951.3.6.
전시독본 3	겨레를 구출하는 정신	중학생 및 성인 소용	1951.3.

전시독본 12종은 '전시하 교육특별조치기'의 산물로, '교육개혁기'[30]에 발행된 『상용한자독본』[31]을 비롯한 전중기 전시독본의 전범 역할을 한다. 이러한 점에서 1·4후퇴로 일시 중단된 수업을 개시할 것을 시달한 '학교교육 개시기'보다는 '전시교재 발간 이후'의 교육내용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 시기의 초등교육은 전시생활 목표가 곧 학습목표가 되었다.

30) 피난기의 교육은 두 시기로 나눌 수 있는데, 1기는 전시하 교육특별조치기(1950학년도~1951학년도), 2기는 교육개혁기(1952학년도~1953학년도)를 말한다. 1기는 다시 '학교교육 개시기'와 '전시교재 발간 이후'로 나누어진다. 한국교육십년사간행회 엮음, 앞의 책, 138쪽.

31) 생활교육연구회에서 엮은 『상용한자독본』 1-3권(금룡도서주식회사, 1952)은 전시하 과도기적인 한자 학습의 특징을 고스란히 담고 있다. "교재의 내용은 시국인식, 국민 상식 및 일상생활에 직접 관계되는 것을 주로 하였다."는 「머리말」을 통해 전시독본과 같은 맥락에서 전중기 한자교육에 드리운 국가주의적 시선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다. 이 독본의 서술방식 또한 1-2권은 『전시생활』과, 3권은 『전시독본』과 매우 유사하다는 점에서 특징적이다.

교보문고 KYOBO Book Centre

(가) 대한민국은 민주보루로서 민주주의 국가 건설에 모든 희생을 바치고 있다. 따라서 교육은 민주주의에 대한 확고한 이해 인식과 민주주의 생활의 실천을 내용으로 하여야 한다.

(나) 우리는 현재 북한 괴뢰군, 중공군과 싸우고 있다. 따라서 교육은 현재의 전국(戰局)을 정확하게 파악하게 하고 멸공필승의 신념을 견지하는 내용을 목표로 한다.

(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국제연합군이 동원되어 싸우고 있다. 세계사상 초유의 일로서 집단 안전보장의 필요와 집단 안전보장을 위하여 공헌할 수 있는 소지를 배양하는 내용을 교육목표로 한다.[32]

앞서 언급한 교재 이름과 전시 초등교육의 목표에서 확연하게 드러나듯이 '전시 국민'을 창출하는 가장 중요한 수단으로 부각된 것이 전시독본이었다. 독본을 통해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우월성 확인, UN에 대한 이해와 공조의 필요성, 반공을 넘어 멸공필승의 신념을 견지하는 전시생활의 실천을 강조함으로써 국민으로서의 정체성을 확립하고자 했던 것이다. 이러한 교육방향은 전시독본의 뒷면에 덧붙인 「지도상 주의」를 통해서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취지

왜 피란을 하였을가? 이 책은, 정든 고향을 버리고 집을 떠나게 된 까닭을, 지난 6년 동안의 남한과 북한의 실정으로 표현하였다. 오래 동안 서로 그리워하며 오로지 국토 통일만 원하고 있다가, 이번 사변으로 말미암아 다시 만난 우리 겨레는, 북한 꼭두각시와 그 무리 중공에 대하여, 새로운 적개심을 돋을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 겨레는 무력전에 앞서 사상전으로 이겼다. 이 점에 특히 유의하여 주기 바란다.

요항

1. 해방 당시의 우리나라. 2. 신탁 통치 반대.
3. 북한 동포의 월남. 4. 대한민국 정부 수립.
5. 6.25 사변—국토의 통일. 6. 중공군 침략—새로운 싸움.

32) 한국교육십년사간행회 엮음, 앞 책, 139쪽.

교보문고 KYOBO Book Centre

주의

1. 어린이들과 그 집안의 경험을 발표시켜 정리할 것.
2. 북한과 남한의 실지 경험담을 들려 줄 것.
3. 피란민에 대한 동포애를 생활 행동으로 지도할 것.
4. 피란민으로서에 생활 지도에 힘쓸 것.
5. 싸움은 무력보다 먼저 사상으로 이겨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할 것.[33]

취지와 요항은 전시생활 목표에서 고스란히 드러났던 바, 학습 지도상의 주의 사항이 이 교재의 특징과 관련이 있다. 전중기 후방사회에서 요구되었던 긴급한 현안은 정신무장을 통한 전시 원호 체제의 확립과 전시생활 지도였다. 인용문의 주의사항 5번 항목에서처럼 가장 중요한 요구는 “사상으로 이겨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하는 데 있었다. 또한 2번처럼 “북한과 남한의 실지 경험담을 들려”줌으로써 국가에 대한 애국심을 고취하고자 했다. 물론 애국심은 경험과 교육을 통해 형성되기도 하지만 특정한 계기에 감정적으로 형성 발전되는 경우가 많다. 이는 개전 초기 갑자기 밀어닥친 전쟁으로 인한 국가 위기가 대중들의 헌신과 애국심의 급작스런 집결을 불러 일으켰던 사실을 통해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34] 전시독본이 발간된 이 시기는 전쟁 초기의 자발적인 헌신과 동원과는 다른 차원에서 자연스럽게 국가주의를 극단적으로 내면화하게 만드는 사상을 적극적으로 주입시킬 필요가 있었다.

4. 전시독본의 구성과 내용

전중기 전시독본의 전사는 전전기에 발행된 ‘소국민 일민독본’[35]이다.

33) 『싸우는 우리나라』, 합동도서주식회사, 1951.2.25, 31쪽.
34) 박명림, 앞의 책, 307쪽.
35) 안호상, 『아름다운 생활』(일민독본 둘째권), 일민주의 연구원, 1950.4. 이 독본

교보문고 KYOBO Book Centre

일민주의는 “한 핏줄”, “한 운명”, “한 백성”, 즉 일민이라는 민족이념을 바탕으로 한 이승만 집권 초기의 이데올로기이다. 일민독본은 어린이들이 이 일민주의를 “배우고 또 몸소 실천하는” 데 목적을 두었다. 일민독본이 교육제도 바깥에서 반공주의를 간접적으로 강조했다면, 전시독본은 제도 안쪽에서 반공주의를 공식적으로 관철시켰다. 즉, 전시독본은 전중기 비국민과 국민의 불안한 경계에서 공산주의에 대한 적개심을 전면화하고 자유민주주의 사상의 우월성을 고취함으로써 총후 국민 형성을 위한 국가주의의 산물인 셈이다. 이를 통해 중공군이나 북한군에 대한 적개심과 애국심을 고취하고 국가 형성의 기반을 다질 수 있었다. 전시독본의 구성과 체재, 성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전시독본은 피난학교에서 한시적으로 사용된 교재이다. 이 독본이 전달하고자 한 지식의 층위는 다분히 전시체제와 관련된 것이다. 『전시생활』 1-1, 1-2, 1-3은 주로 전투수행 수단인 비행기, 탱크, 군함의 종류와 역할 등에 관한 군사지식을 알기 쉽게 전달하는 데 목적을 두었다. 중공군에 대한 적개심 고취와 승리 확신, 유엔에 관한 지식 축적(주로 국기를 그리는 것으로 학습), 국제연합군과 국군에 대한 위문 등이 아동들에게 부가한 논리였다. 「지도상 주의」에서 “독해력이 붙지 못한 1학년(특히 전재지구)에서는 그림을 보이는 것을 주로 하여 자유롭게 이야기하도록 하고, 교재는 필요에 따라 교사가 읽어 줄 것. 글자를 억지로 가르치고자 하지 말 것”이라 한 것을 보아 어린이의 전시생활에 초점을 맞추었다. 원래 독본의 기능을 고려할 때, 글자 학습이 목적이 아니라 전시체제에서 꼭 알고 실천해야 할 소양과 지침을 전달하는 데 치중하고 있는 셈이다. 『전시생활』 2-1, 2-2, 2-3의 경우도 서사 형식을 통해 광복과 대한민국 정부의 수립, 전쟁 발발, 피난과 북진(2-1), 자유의 중요성과 유엔의 결성, 한국전쟁 참전 과정(2-2), 일선에서의 무용담, 총력전 체제

또한 전시독본과 마찬가지로 어린이들이 가정과 학교에서 겪은 일을 이야기의 형식으로 풀어 일민사상의 본바탕을 독자들에게 알기 쉽게 전달하고자 했다.

교보문고 KYOBO Book Centre

에서의 대중의 역할(2-3) 등을 알기 쉽게 다루고 있다. 그러나 『전시생활』 3-1, 3-2, 3-3은 전시체제의 이념을 서사 방식을 탈피하여 설명적 텍스트(3-1, 3-2)와 일기 형식(3-3)으로 구성했다. 내용은 1, 2와 크게 다르지 않다. 국제연합독본(3-1), 전쟁의 과정과 전선에서의 무용담(3-2), 전시생활에서의 위문의 중요성과 위문 활동(3-3)을 제재로 삼았다. 현재 확인할 수 있는 전시독본 2권 『자유의 투쟁』은 『전시생활』의 내용적 층위를 중학생과 성인의 수준에 맞게 내용을 구성하였다.[36]

둘째, 당대 사회의 긴급 현안을 텍스트의 주된 내용으로 삼고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이는 '계몽 지도'[37]의 내용에서 두드러진다. 패전(敗戰) 또는 염전(厭戰) 근성은 사상전에서 배척해야 할 의식이며, 자유진영과 대한민국이 궁극적으로 승리한다는 낙관적 믿음은 전시독본을 관류하는 주제다. 이 외에도 산업재건, 피난민 구호와 복구, 재무행정, 치안, 징세 문제 등의 현안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있다. 『전시생활』에서는 전시 후방행정에서 중요한 일이 도로의 보수 정비와 징세, 위문활동의 내용을 주된 제재로 채택하고 있다. 다음은 이대통령의 담화 내용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있는 부분이다.[38]

> 영철이는 저녁을 먹고 나서
> "아버지 웬 자동차가 그렇게 많이 다녀요?"

---

36) 함상훈이 집필한 이 독본의 목차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1. 자유를 위한 투쟁, 2. 자유의 뜻, 3. 집단안전보장(集團安全保障), 4. 한국전쟁의 앞길, 5. 정의는 이긴다. *이은상의 시 「조국에 바치는 노래」

37) "設事 韓國動亂이 世界戰爭化한다 할지라도 終局的 勝利는 民主陣營에 있고 따라서 大韓民國의 勝利인 것입니다. 現 軍事態勢라든지 國際情勢는 大韓民國에 對하여 有利한 것뿐입니다. 그러나 이 戰爭은 우리의 戰爭이매 우리가 싸워야만 이기는 것입니다. 敗戰 惑은 厭戰根性은 禁物입니다. 近代戰은 總力戰이매 思想戰에 이기고 生産戰에 이겨 銃後의 結束으로서 前線에 武力戰을 掩護해 주어야 합니다.「全國特別地方官會議遂開幕!-民弊團束 治安强化 避難民救護에 溫情 要望 趙內務長官 訓示要旨」, 『경향신문』 1951년 3월 8일치 2면.

38) 「전국 도로 수리에 국민은 총궐기하자」, 『동아일보』 1951년 1월 24일치 2면.

교보문고 KYOBO Book Centre

하고 아버지께 여쭈어 보았습니다.

"싸우는 곳에 물자를 보내 주어야 하지 않니? 병정들이 잘 싸우게 하려면 뒤를 빨리 대 주어야 한단다. 영철아 자동차로 무얼 그렇게 실어 나르는지 알겠니?"

"총알, 대포알, 또……." (…중략…)

"그럼, 그런 것들을 모두 저 길로 나르나요."

"그렇고 말고. 저 길이 서울로 가는 길이고 싸움터로 벋어나가는 길이니까."

"그럼 길이 퍽 좋아야 하겠는데요?"

영철이는 아까 자동차들이 덜커덩 하며 구렁에 빠지던 일과 어른들과 함께 길을 고치던 일을 생각하였습니다.

"그렇고 말고! 참 너는 오늘 장한 일을 하였다. 우리는 싸움터에 못 나가는 대신에 뒤에서 우리 힘이 미치는 데까지 도와 주어야 한다. 이렇게 국군과 국민들이 힘을 한데 모아야 오랑캐들을 빨리 무찌를 수가 있는 것이다. 이러한 싸움을 총력전이라고 한다."

—「이기는 길」 가운데서[39]

셋째, 한국전쟁이 사상전이었고 전중기 후방사회에서 군인 못지않게 민간인에 대한 사상 훈련이 필수적이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전시독본의 발간 '취지'를 효과적으로 지도하는 방법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자유민주주의 체제에 대한 심정적 경사를 확신으로 전환하기 위해 『전시생활』과 『전시독본』의 주된 독자층을 다르게 설정한 만큼 별도의 수사적 전략이 요구되는 셈이다. 『전시생활』이 피난지 어린이들이 학교와 가정에서 실제 경험한 내용을 서사 형식으로 구성하여 자연스럽게 전시 "생활 지도"를 수행하고자 했다면, 『전시독본』은 설명 방식을 통해 국책 이념을 전달하는 목적의식적 측면이 강했다.

공산 국가는 전제요 독재이기 때문에 위성 국가에 불평이 있기 쉽고, 국내에서는 반정부운동이 있을 수 있으나, 민주 국가는 국민의 의사에

39) 『씩씩한 우리 겨레』, 문교부, 1951.3.25, 20~22쪽.

교보문고 KYOBO Book Centre

의하여 정부가 운영되고, 각국의 자유의지에 의하여 단합된 것인 즉, 민주 국가의 결속이 강할 것은 명백한 사실이다.

—「5. 정의는 이긴다」 가운데서[40]

넷째, 한국전쟁기는 국가주의와 반공주의, 애국주의가 절대적인 가치로 내재화되면서 일상을 전장화시키는 선전전을 통해 국민형성과 국가형성의 명분을 강화시켜 나갔다. 전중기 피난지 부산은 병참기지이자 국가주의의 기획 아래 결전담론이 폭넓게 생산·향유되던 선전전의 전초기지였다. 이러한 맥락에서 발간된 전시독본은 훗날 『상용한자독본』, 『애국독본』, 『반공독본』, 『반공교본』, 『애국생활』, 『도의생활』 등으로 확대 재생산되면서 국민국가의 형성과 유지를 공고히 하는 이데올로기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었다. 이러한 사실은 비슷한 시기 교육제도 안쪽에서 사용할 목적으로 발간된 『상용한자독본』을 통해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다음은 『상용한자독본』에서 발췌한 부분이다.

(1) 모두들 아저씨의 一線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하였다.

우레 같은 박수를 받으시며, 아저씨는 힘차게 이야기를 시작하셨다.

"저를 이처럼 반갑게 맞아주시니, 참 고맙습니다. 싸우는 동안에도 자나 깨나 잊혀지지 않는 것은 家族들의 消息이었습니다."

이어서 아저씨는 西部 전선 이야기를 하시고 나서 끝으로,

"저는 家族들을 다 만나 뵈었으니, 다시 一線으로 나아가 우리 집안의 명예를 爲하여 힘차게 싸우겠습니다."

라고 말씀하셨다.

아저씨의 말씀에 모두 감격하였다.

—「一. 우리집-2. 아저씨 歡迎會」 가운데서[41]

(2)

2. 다음 한자의 번호를 아래 글의 (　) 속에 맞도록 써 넣어라.

---

40) 『자유의 투쟁』(전시독본 2), 문교부, 1951.3.6, 25쪽.

41) 생활교육연구회, 『常用漢字讀本』 1권, 금룡도서주식회사, 1952.10, 8~9쪽.

교보문고 KYOBO Book Centre

(1)合 (2)爲 (3)中
ㄱ. 지금은 事變 ( )이므로, 우리는 더욱 물건을 아껴 써야 하겠습니다.
ㄴ. 우리는 지금 힘을 ( )하여 共産軍을 쳐 몰아내고 있습니다.
ㄷ. 國家를 ( )하여 우리는 모든 것을 바쳐야 합니다.
—「연습문제 (1)」 가운데서[42]

전시독본과는 달리 특징적으로 '연습문제'를 두고 있다. 일반적으로 연습문제는 단원학습과 관련하여 엮은이의 의도가 잘 드러나는 부분이다. 각 단원과 연계된 주제의식을 강조한다는 점에서 쉽게 지나칠 수 없다. (2)에서 알 수 있듯이 국가에 대한 충성, 전선 상황, 전시생활 지침이 문제를 통해 단원학습과 연계되어 전달된다.

다섯째, 이러한 전시독본은 학교 제도 안쪽에서 전쟁기 동심의 형성에 직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는 전시교육이 멸공필승의 반공주의를 과도하게 강조한 결과로 보이지만, 전시독본의 생산과 유통이 지닌 가시적인 효과로 볼 수 있겠다. 이는 당시 부산 봉래초등학교에서 발간한 교지 『봉래싹』을 통해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1)
그리운 우리 엄마
　　어째서 헤어졌나
오랑캐 못된 놈들
　　삶아도 시원찮다
남은 다 피난해 오건만
　　울 엄마는 왜 안 와
—정구익(5의 1), 「우리 엄마」 전문[43]

42) 생활교육연구회, 위의 책, 14쪽.
43) 『봉래싹』 제4호, 부산봉래국민학교 학예부, 1951.7.1, 9면.

교보문고 KYOBO Book Centre

(2)
우리집 고양이 육군 고양이
어제는 마루에서 습격 훈련하더니
오늘은 일선에 나갈 준비하지요
중공 오랑캐 쥐놈과 싸우노라고
밥을 줘도 먹지 않고 쥐만 잡아먹죠
우리집 고양이 육군 고양이
나라를 위하여 싸우노라고
밤낮을 가리지 않고 힘껏 싸우지요
오늘도 중공 오랑캐 쥐란 놈을 한놈 포로로 하여
요리조리 놀리며 잡아먹지요
—배동철(5의 2), 「싸우는 육군 고양이」 전문[44]

『봉래싹』은 창간호가 언제 발간되었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으나, 5호를 7월 20일경 발행하겠다는 기사[45]를 보아 학내 구성원들 중심의 비정기 회람용 회보로 보인다. 전체 15면으로 발행되었으며, 당시 4학년 담임을 맡고 있었던 안장현 시인이 편집주간을 맡고 있었다.[46] 당시의 출판 상황을 고려할 때, 철필이 아닌 활자로 인쇄했다는 점에서 의외다. 당시 봉래초등학교는 교사(校舍)를 미군기지로 내어주고, 영주동과 초량 경계에 있는 박간산으로 옮겨 천막에서 수업을 했다. (1)은 당시 피난지 소재 학교에 등록하여 교육을 받았던 학생의 시로 보인다. 오랑캐 중공에 대한 적의와 이산(離散)의 아픔을 직접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2)는 쥐와 고양이의 비유체계를 동원하여 "중공 오랑캐"에 대한 적개심과 승전의지를 고취하고 있다. 이 외에도 북으로 간 오빠의 승리를 기원하는 「북으로 가신 오빠」(신춘자, 6의 5), "똑딱선"과 "돛단배", 그리고 "오랑캐 떼 물리치러 떠나"가는 "군함"을 묘사하고 있는 「푸른 바다」(김정신,

44) 『봉래싹』 제4호, 부산봉래국민학교 학예부, 1951.7.1, 13면.
45) 안장현, 「편집을 마치고」, 위의 책, 15면.
46) 외부 필진으로 안장현과 친분이 두터웠던 아동문학가이자 소설가인 손동인의 동시 「아가야 가자」가 수록되어 있어 눈길을 끈다.

교보문고 KYOBO Book Centre

4의 5)와 같은 시나 일선에서 부상당한 오빠의 회복을 기원하는 위문편지 「오빠에게」(강영애, 3의 6), “북진은 너도 나도/ 국채는 내가 먼저”라는 표어 등에서 전쟁이 드리운 싸우는 동심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5. 마무리

한국전쟁기는 의외로 연구 영역이 넓은 자리다. 그동안 전시체제와 전시문화론, 후방지 문학사회와 피난문단, 피난문단의 형성과 문단의 지역적 재편, 정훈문학과 정훈매체, 문학사회와 전시동원, 전시교육과 국가주의 등에 걸쳐 익숙하게 연구되었으나 여전히 새롭게 다가서야 할 지점이 많다. ‘전쟁’에 관한, 혹은 전시문화와 전시교육에 관한 가장 기초적인 인식틀을 거듭 거론하는 일은 일정한 연구 성과의 축적에도 복합적인 상황과 문제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드러내는 것이다. 더욱이 국책의 이념과 의식적·무의식적으로 결합된 자리는 더욱 그렇다. 전시독본의 실체를 밝힌 이 글 또한 이러한 점과 관련이 깊다.

두루 알다시피 한국전쟁은 사상전이었다. 전시체제에서는 이러한 사상전에 부합하기 위해 기존의 제도나 교육의 방식을 새롭게 재편할 수밖에 없었다. 이 시기의 가장 큰 변화는 기존의 제도를 뒷받침해 왔던 신문이나 잡지, 단행본 매체 등이 국가 기획에 적극적으로 부응했다는 점이다. 대표적인 현상이 독본의 발간과 유통이다. 대중의 지적 취미나 통속적 취향을 충족시켜 주는 독본이 유통되기도 했지만, 전시체제에 부응하는 방향으로 매체의 독본화가 다양한 영역에서 이루어졌다. 특정한 분야의 지식과 교양의 습득이라는 본래 취지에서 나아가 피난교육기관에서 국책이념을 교수하고 시국 인식을 심화시키기 위해 발간된 전시독본이 대표적인 사례다. 이를 통해 국가이데올로기를 내면화시키고 전시

교보문고 KYOBO Book Centre

체제에서의 사회적 역할과 실천을 강조할 수 있었다.

한국전쟁기 독본을 정리해 보면, 전시독본 외에 확인한 것만 40여 종을 훌쩍 넘는다. 광복기 독본이 판(版)을 달리하여 유통되거나 전중기(戰中期) 정부기관이나 군(軍), 문교부나 학교제도, 민간에서 새로운 독본이 양산되었음을 알 수 있다. 물론 민간에서 대중을 계몽하기 위한 목적으로 발행된 독본 또한 적지 않다. 이 글에서 구체적으로 다루지 않은 『성교육독본』, 『농민독본』, 『성인독본』, 『국민독본』 등이나 각 지역에서 발행된 유인본 독본까지 포함한다면, 한국전쟁기 독본의 생산과 유통, 향유는 가히 폭발적이었다고 말할 수 있는 셈이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독본의 발간 현황조차도 전체적으로 파악할 수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1차 문헌사료의 확보가 한국전쟁기 독본 연구의 성패를 좌우하는 결정적인 열쇠다. 현재 학계에 익숙하게 알려져 있는 몇몇 독본 자료들만으로 연구를 수행한다면 광복기와 한국전쟁기에 이르는 독본의 생성과 유통 과정을 효과적으로 고구할 수 없을 것이다. 나아가 한국전쟁기 독본 연구가 근대문화사와 문학사, 사회사, 교육사의 풍요로운 이해에 기여할 수 있기 위해서는 개별 독본의 성격을 규명하고 이들 독본들 간의 영향 관계를 함께 고찰할 필요가 있다.

교보문고 KYOBO Book Centre

참고문헌

1. 일차자료

경북대 사범대학 국문학회,『韓國現代詩選』중기, 1953.
류정기 편역,『古典敎本』(고등학교 제2년용), 유인본, 1950.
문화교육연구회,『애국생활』(5·6학년), 대한출판문화사, 1954.12.
『봉래싹』제4호, 부산봉래국민학교 학예부, 1951.7.1.
생활교육연구회,『常用漢字讀本』卷一, 서울:금룡도서주식회사, 1952.
생활교육연구회,『常用漢字讀本』卷二, 서울:금룡도서주식회사, 1952.6.
생활교육연구회,『常用漢字讀本』卷三, 서울:금룡도서주식회사, 1952.10.
서정주 엮음,『現代朝鮮名詩選』, 서울:온문사, 1950.2.
장만영 엮음,『고등 문예독본』, 서울:대양출판사, 1953.4.
장만영 엮음,『중학생 문예독본』1~3, 서울:대양출판사, 1952.5.
한국교육문화협회 엮음,『애국독본』(중등용)·(고등용), 우종사, 1955.3.
한국교육문화협회,『반공독본』①~⑥, 서울:박문출판사, 1954.11.
『겨울공부용 전시부독본』②~⑥, 대한교육연합회, 1951.12.
『아름다운 생활』(소국민 일민독본 둘째권), 서울:일민주의연구원, 1950.4.
『여름공부』(국민학교 부독본) ③~⑥, 대한교육연합회, 1952.7.
『전시부독본 여름공부』③~⑤, 대한교육연합회, 1951.7.
『전시생활 1-1 비행기』(국민학교 1·2학년), 문교부, 1951.3.
『전시생활 1-2 탱크』(국민학교 1·2학년), 문교부, 1951.3.
『전시생활 1-3 군함』(국민학교 1·2학년), 문교부, 1951.3.
『전시생활 2-1 싸우는 우리나라』(국민학교 3·4학년), 문교부, 1951.3.
『전시생활 2-2 우리는 반드시 이긴다』(국민학교 3·4학년), 문교부, 1951.3.
『전시생활 2-3 씩씩한 우리 겨레』(국민학교 3·4학년), 문교부, 1951.3.
『전시생활 3-1 우리나라와 국제연합』(국민학교 5·6학년), 문교부, 1951.

교보문고 KYOBO Book Centre

3.
『전시생활 3-2 국군과 유엔군은 어떻게 싸워 왔나?』(국민학교 5·6학년), 문교부, 1951.3.
『전시생활 3-3 우리도 싸운다』(국민학교 5·6학년), 문교부, 1951.3.
『전시독본 2 자유의 투쟁』(중학생 및 성인소용), 문교부, 1951.3.
『정훈교본-민주진영의 철통같은 반공태세』, 육군본부 정훈감실, 1955.2.
『정훈교본-휴전에 대비하여 더욱 정신무장을 굳게 하자』, 육군본부 정훈감실, 1953.8.

2. 이차자료

김동춘, 『전쟁과 사회』, 돌베개, 2006.
문교부, 『문교개관』, 대한문교서적주식회사, 1958.
문교부, 『文敎要覽』, 대한교육연합회, 1956.
박명림, 『한국 1950 전쟁과 평화』, 나남, 2002.
박태일, 「목포지역 정훈 매체 『전우』 연구」, 『현대문학이론연구』 제38집, 현대문학이론학회, 2009, 213~261쪽.
이순욱, 「한국전쟁기 피난지 부산과 국민형성의 담론」, 『작가와 사회』 39호, 산지니, 2010, 22~37쪽.
이순욱, 『한국전쟁기 부산 지역문학과 동인지』, 『영주어문』 제19집, 영주어문학회, 2010.2, 121~156쪽.
이종국, 『한국의 교과서 변천사』, 대한교과서(주), 2008.
이중한, 『책, 사슬에서 풀리다』, 혜안, 2005.
이치석, 『전쟁과 학교』, 삼인, 2005.
한국교육십년사간행회 엮음, 『韓國敎育十年史』, 서울:풍문사, 1960.
해군본부정훈감실 엮음, 『국방과 정신무장』, 대한군사원호문화사, 1952.
허 강, 『한국의 검인정 교과서』, 일진사, 2004.

교보문고 KYOBO Book Centre

<Abstract>

The Foundation and Logic of Readers during the Korean War Period

Lee, Soon-Wook

The Korean War was an ideological warfare. On a war footing, existing literary systems or means of education had to be reorganized to conform to the ideological battle. One of the most remarkable changes was that the media including newspapers, magazines and books which sustained the established system of the time played a very active role in national planning. During the Korean War Period, a variety of readers were produced to meet the different needs of the public, either intellectual or popular tastes. In the fields of literature and education, the media became readers for themselves as it was changing in line with the war footing. These readers were used as a supplementary textbook for a specific subject at schools, as well as a means of instilling specific ideology and knowledge more conveniently into soldiers or the wider public without school education.

The purpose of this paper was to take a closer look at the foundation, reality and characteristics of wartime readers published during the Korean War, which has been pushed aside thus far in the researches on the Korean War Period literature. Among the readers, this paper focused particularly on wartime readers, which were utilized as auxiliary textbooks at education facilities for refugees to implant specific ideologies and to raise people's awareness of the current situation at the time. These wartime readers were comprised

교보문고 KYOBO Book Centre

of nine different types of『Wartime Life』targeting elementary school students and three types of『Wartime Reader』designed for middle school students and adults. Based on the dichotomy between ally and enemy, these readers were strategically published to bring the anti-communism with the cold war mindset into the fore and to internalize the excessive yearning for free democracy represented by the United States.

Wartime readers, which are rightly described as strategic texts with a strong political and enlightening nature, can be divided into troop information and education (TI&E) readers and cultural readers. TI&E readers aimed at encouraging the public's political education to indoctrinate the national ideology, while cultural readers literally meant to enhance the level of people's culture and knowledge.『Wartime Life』and『Wartime Reader』, collectively referred to as wartime readers, were distributed free of charge to students at war refuge shelters as an important TI&E readers for instilling national ideology, and they were one of the most important state-run media to unite the public in the rear. These efforts were made to confirm the superiority of free democracy, reaffirm the need to understand and collaborate with the United Nations and to emphasize the importance of practicing the wartime lifestyle with unwavering commitment to anti-communism, thereby firmly establishing a national identity.

The message that these wartime readers intended to deliver was mostly related to the war footing and the most pressing issue of the time was used as a main theme. This is especially true for 'Enlightenment Guidance,' in which defeatism or war-weariness were described as the sets of mind that should be firmly excluded in ideological warfare, while implanting the positive conviction that Free World and the Republic of Korea would eventually prevail. In addition,

교보문고 KYOBO Book Centre

industrial reconstruction, relief activities for war refugees and restoration, governmental financial management, public order and security, tax collection and many other pending issues of the time were aggressively reflected. As the target readers for『Wartime Life』and『Wartime Reader』were different, they adopted different rhetorical devices for maximum effectiveness. While『Wartime Life』tried to provide a guidance for wartime lifestyle in a natural way through a narrative of real story that children from war refugee shelters experienced at school or at home,『Wartime Reader』was strongly driven to convey the national ideology through explanation. Lastly, these wartime readers continued to be reproduced in the form of『Common Chinese Reader』,『Patriotic Reader』,『Anti-communism Reader』,『Anti-communism Textbook』,『Patriotic Life』,『Moral Life』, performing an ideological role of consolidating efforts to establish and maintain a nation-state.

Key Words : readers, wartime readers, literary readers, anti-communism readers,『Wartime Life』,『Wartime Supplementary Reader』, decisive match education, public development

▌논문접수 : 2011년 6월 30일
▌심사완료 : 2011년 8월 5일
▌게재확정 : 2011년 8월 10일

교보문고 KYOBO Book Centre